

증시는 이번 주부터 신세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실적발표)시즌에 진입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세계를 시작으로 11일 LG필립스LCD, 12일 POSCO, 14일 삼성전자의 2·4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과거 경험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인 어닝시즌 초반부가 증시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와 시장 반응이 전체 어닝시즌의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2·4분기 실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시장은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과 경기 흐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닝시즌 방향타 = 일단 2·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시장 전망의 낙관적인

■ 어닝(실적발표) 시즌의 증시 (Earning)

일단 관망세... 하반기 전망 '축각'

삼성전자 성적표가 시장반응 방향타 기업실적 맞물린 경기둔화 주목해야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교보증권은 MSCI 한국 지수의 12개월 예상 주당순이익(EPS)은 하향조정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2·4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4분기대비 2.5%, 작년 동기대비 13.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또 "2·4분기 코스피200 종목의 영업이익이 13조5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1% 감소하고,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며 따른 것이다. 동부증권은 또 "업종별로 은행, 조선, 유통, 기계 등의 업종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IT, 화학, 유틸리티업종은 부진한 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석현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온통 2·4분기 실적 발표에 쏠려 있

다"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 시장도 한 차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영향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 전망에 초점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 2·4분기 기업 실적이 최근 1개월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실제 결과에 근접한 데다 우려감 역시 충분히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어닝시즌에서 기업들의 2·4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전망에 주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기서 삼성증권 증권조사팀장은 "증시는 기업들이 내놓는 2·4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전망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주 증시는 기업들의 전망치를 초조하

게 기다리며 혼조양상을 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부증권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관련 종목군으로 현대건설, 한화, 제일모직, 대한전선,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현대제철, 한솔LCD, SK케미칼, 한미약품, 고려아연, 웅진코웨이,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을 선정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실적과 맞물린 경기둔화 전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 하반기 세계 경기가 둔화세를 보인다면 정보기술(IT)주와 같은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는 다시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백화점·할인점 43.6%

납품업자에 부당 행위

백화점이 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납품업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부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5월 대규모 소매점업자 39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43.6%인 17개 사업자가 대규모 소매점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시인한 부당한 행위는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열가납품을 강요한 행위(2.6%), 납품업자 등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5.3%),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관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8.3%), 서면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 행위(2.6%) 등이었다.

또 함께 조사를 실시했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96개 업체도 81.2%에 달하는 75개 업체가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서를 기한내 제공하지 않거나(23.2%),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4.2%), 별첨부와 등 일정한 조건이 달린 거래를 하는(13.3%)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대규모 소매점업자와 가맹본부의 납품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에게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거쳐 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횡수가 많거나 부당한 사항이 중대한 사업자에 대해 10~11월중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협뉴스

'新 4P 전략'으로 중국시장 공략을

코트라(KOTRA) 보고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새로운 변화를 보임에 따라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KOTRA)는 10일 발간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신(新) 4P 전략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내수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4P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상품(Product) 전략'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이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삶의 질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중국의 사회구조상 소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상위계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과도기적 경제시점에 따른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상품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계층에 따른 '가격(Price) 전략'도 요구된다. 상위층의 자기 과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무장한 상품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중·하위층을 겨냥해서는 경제발전의 필요로움과 제한된 소득에 따른 양면적 소비패턴에 맞춘 고가

- ◎ 신(新) 4P 전략
- ① 상품(Product) 전략
- ② 가격(Price) 전략
- ③ 판촉(Promotion)전략
- ④ 유통(Place) 전략

와 저가상품을 묶은 번들(bundle)가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판촉(Promotion) 전략'에 있어서는 중국인의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한편 정형화하고 있는 계층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 대 고객의 관촉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유통(Place) 전략'은 중국 소비자의 눈높이가 향상되고 있는 만큼 고객 접점서비스 강화를 통해 중국인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야 하며, 현지에 대한 정보부족을 채우기 위한 현지파트너 활용도 필요하다.

양장석 코트라 동북아팀장은 "중국 내수시장의 진입 성패는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향후 의료업·여행업·광고업·교육업·녹색농업 등이 유망한 성장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협뉴스



F1 레이싱카 '샤크'

10일 서울 웨스튼조선호텔에서 열린 '마일드세브 르노 F1 레이싱카' 발표회에서 한국의 디자이너 최범석(왼쪽)씨가 '샤크'를 컨셉으로 디자인한 '마일드세브르노F1팀'의 레이싱카를 직접 선보이고 있다. /연협뉴스

산은총재 연봉 7억1,120만원 최고

예산처, 268개 공공기관 CEO연봉 공개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이 지난해 기준으로 7억1000만원이 넘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균의 5.6배, 서울대병원장과 비교하면 8배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연봉도 3억~4억원대에 이르는 등 공직(公) 금융기관 CEO의 연봉도 대부분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318개 공공기관 중 CEO연봉을 공개한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은 총재의 연봉이 7억1120만원으로 분석대상 기관 평균(1억2814만원)의 5.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경우 감사도 4억8540만원, 이사로도 3억5794만원을 받아 다른 공공 금융기관 CEO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출자기관 중에선 산은에 이어 ▲중소기업은행 5억76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3억4000만원 ▲한국가스공사 3억3568만원 ▲대한주택보증 3억19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6100만원 ▲한전 2억5334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억4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기관 중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 4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기금 3억97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5700만원 ▲한국수출보협공사 2억67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국립대병원의 경우 서울대치과병원이 1억

■주요 공공기관 CEO연봉 (2005년 기준·원)

한국산업은행	7억1120만
중소기업은행	5억7600만
한국주택금융공사	4억2535만
신용보증기금	3억9654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3억6000만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5726만
한국수출입은행	3억4000만
한국가스공사	3억3568만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6100만
한국전력공사	2억5334만
예금보험공사	2억5052만
국채금융센터	2억3944만
국민연금관리공단	1억6745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억2370만
공무원연관관리공단	1억2024만
한국개발연구원	1억1961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억598만

2400만원, 서울대병원은 9200만원에 그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인타세이브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그래머 (병역특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225-0054
호텔 프리도	[식음료부/캐셔/객실부] 정규직 시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654-9999
한국쓰리엠	공무부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1-330-7012
영풍문고(강남)	광주점 매장관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13	062-364-0210
정광금속	품질 관리자/구매 관리자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07/14	2-955-6081
O나라	경리, 회계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7/14	062-224-6074
이리이프매거진	기초거래처 관리/신규 영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10-6665-8119
채일	생산부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953-7952
대한생명보험	2006 신입 및 경력 2기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7/15	011-9620-6805
인원산업	관리직 남/녀 사원(관리업무/경리,총무)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20	062-655-4840
인원광기공 본사	난방기/A/S기사 및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0	062-954-2204

(광주직접리터 512-6210 제공)

대학생 44.2% "일제가 최고"

대학생 매거진 씽크(www.thinkcontest.com)과 취업사이트 파워잡은 대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제품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일본을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그 다음은 '한국(23.8%)', '미국(12.9%)', '유럽(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또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제품(24.3%)', '주변의 평가(19.9%)', '광고(15%)', '최고경영자(13.4%)' 등을 들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도로는 A~E화점 가운데 C화점(보통)을 들은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들의 기업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보통(3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단, LG카드 공개매수 의결

LG카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0일 LG카드 매각방식과 관련, 공개매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공개매수 조항을 둘러싼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한 달여간 중단됐던 LG카드 매각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LG카드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우리.기업은행, 농협 등 채권단 운영위 소속 4개 기관은 이날 만장일치로 공개매수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또 별개의 안건으로 3% 미만 소액 채권단을 정리해 전체 채권단수를 10개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조건부로 의결했다.

채권단은 3% 미만 소액 채권단 7곳 가운데 5곳의 채권단이 스스로 지분을 파는데 동의할 경우 기존대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액채권단이 공개매수시 얻을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기하고 지분을 팔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매수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연협뉴스

미국 '사베인-옥슬리법' 15일부터 적용

한국기업 회계관리 '비상'

미국이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기업 투명성 강화를 겨냥해 제정한 사베인-옥슬리법이 오는 15일부터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자에서 1천200여 외국기업이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른 회계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특히 12월말 결산 법인들이 시간에 쫓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은 자본금 7천500만달러 이상의 미국내 모든 외국 상장기업이다.

외국기업들이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사베인-옥슬리법 가운데서도 재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불만이 큰 '섹션 404'다.

회계 컨설팅사 PwC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12월 결산법인들이 특히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입기음 변식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SEC도 재계의 지적을 일부 인정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자체 조사된 '회계상 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 대해 당사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대신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하는지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런 공개가 많을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협뉴스

▲사베인-옥슬리법 '섹션 404' = 기업 이사회가 스스로 회계시스템을 점검해 문제가 없으면 이를 감독기관인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한편 회사 비용을 들여 시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GS칼텍스 유전개발

태국 육상 탐사광구 지분 참여

GS칼텍스는 태국 최대 육상유전인 시라키트(Sirikit) 유전 인근에 있는 7천 651km 크기의 탐사광구 L10/43, L11/43에 지분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유전 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GS칼텍스는 최근 일본 MOECO (MITSUI OIL EXPLORATION COMPANY)사(社)가 100% 지분 및 운영권을 소유한 이 광구에 대해 입찰을 통해 지분 3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정부의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지분 15%를 보유한 캄보디아 북쪽A 광구와 4% 지분을 갖고 있는 러시아 서캅카스 해상 광구 등 모두 3개의 탐사광구를 보유하게 됐다.

GS칼텍스는 앞으로 MOECO사와 함께 하반기 안에 1개 탐사정 시추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광구내 유망지역에 대한 탐사 작업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타

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광구 중앙에 두개은 퇴적층이 잘 발달 돼있고 태국해상의 석유생산지역인 파타니(PATTANI)분지 및 GS칼텍스가 이미 참여해 원유 발견에 성공한 캄보디아 Block A가 위치한 크메르(KHMER) 분지와도 유사한 형태의 지질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탐사 성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S칼텍스 허풍수 회장은 "앞으로도 동남아·중동·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전략지역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유전개발을 통해 회사 정제능력의 하부 65만 배럴의 10~15%까지 (원유를)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그룹은 이번 지분참여로 GS칼텍스 3개 외에 GS홀딩스 5개 등 총 8개 광구에 지분참여 형태로 유전 개발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